

한·일 동반자관계유지 위해

일본, 정신대문제 사죄·배상해야

日人아카타나씨 왜곡역사 수정할때 「진정한 화해」·「이웃」가능

정신대의 실상을 폭로하는 「진상폭로대회」가 지난 28일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개최, 일본의 반성과 사죄·배상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나가기를 촉구했다.

미동부한인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폭로대회에서 일본가톨릭사회정의위원 칸 아카타나씨는 「한국과 일본은 한 형제로서 함께 일하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 일본은 사죄와 함께 왜곡된 역사를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역사학교수인 아카타나씨는 「지나온 역사를 후세에게 올바르게 알려나가는 작업

이 우리세대에서 필요하다」고 밝히고 『교과서수정등 현실적인 오류시정을 통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진정한 양측의 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진성교수(한국정신대 연구회장·덕성여대)는 「세계인권운동에서 본 정신대문제」를 주제 강연, 정신대의 참상은 가장 처절한 고통이었다고 강조하고 「수치스런 과거」라는 생각보다는 더이상의 왜곡된 수치와 이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상을 올바르게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버드대학객원연구원

인 박원순 변호사는 「국제법에서 본 정신대문제 해결가능성」을 주제로 향후 정신대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제시, UN과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계 안에서 정신대피해의 배상은 받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들 강사

들의 진상폭로에 앞서 정신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탄식의 소리와 시「피어라, 불발허라(광상희)」가 이미경씨에 의해 낭송됐으며 YWCA홍인숙총무의 촛불점화로 엄숙한 가운데 진행, 정신대문제해결에 숙연한 결의를 보였다.

또 실행위원인 박윤숙씨와 판소리무형문화재인 박초선씨가 희생자를 위한 특별판소리를 불러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했으며, 「울밑에 선 봉선화」를 함창하며 일제의 만행을 되새기는 등 3·1절 쟁기대회의의지를 다졌다.



정신대진상폭로 대회가 28일 플러싱제일교회에서 개최, 일본의 사죄와 배상으로 왜곡된 역사를 수정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은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칸 아카타나 일본 가톨릭 사회정의위원